

“KTX 악용 민심 분열 행위, 좌시 않겠다”

정현을 시장, 익산역의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 선정 화합 요청

익산시가 KTX 호남고속철도를 악용해 도민의 민심을 분열·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시의 이 같은 입장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호남고속철도 강제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얻게 된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정현을 시장은 21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갖고 “KTX 익산역은 유라시아 시발역으로 도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호남고속철도 강제역 신설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진단했다. 정 시장은 “이

번 용역은 2018년 예산에 용역비 1억원이 반영돼 시작된 바 있다”며 “그 결과 경제성(B/C)이 0.4 내외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전주권에서 KTX 전북통합역 신설을 주장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용역 결과는 전북 영향권 내 미래 발생 수요까지도 고려해 분석한 것이므로 신설역 건설 등의 제안은 소모적일 뿐이다”고 피력했다.

정 시장은 “KTX 익산역은 호남선, 전라선, 군산선, 장항선 등 4개 철도



가 분기하는 전국 유일의 철도역이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유라시아 시발역으로 제안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익산역은 현재와 앞으로 매우 중

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TX 익산역이 유라시아 시발역으로 선정되면 국제간 이동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실시되는 세관검사와 출입국관리, 검역 등을 수행할 수 있다”며 “정복도는 물론이고 서남부 권역의 이용객들이 국제여행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새로운 미래성장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게 된다”고 역설했다.

정 시장은 “다 시·도와의 경쟁에서 익산역이 우위를 확보해 유라시아 시발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과 도민이 뭉쳐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도심지 집중호우 대비 침수예방사업

최근 들어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는 도심지 집중호우 대비 침수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지 침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 324억 원을 투입해 변경로 일원 차집관로 준설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시는 변경로 일원(월명경기장~경장사거리)에 재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투입해 차집관로 3.7km, 준설량 2,700㎥를 정비하는 등 올해 3월 착공해 상반기 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조촌동을 중심으로 롯데빌 일원에도 올해 3월 착공을 시작으로 하수박스 1.8km, 준설량 4,526㎥를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작

업 완료 이후에도 유지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관거사업으로는 구암동 현대 APT 일원을 대상으로 올해 1월 실시 설계용역을 실시해 3월 우수관로 정비 공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이외에도 장기적으로는 총 사업비 294억 원이 투입되는 산북동 일원 침수예방 중점관리사업(2단계)이 2020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신청을 했으며 군산하수처리장 및 차집관로 by pass 시설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을 추진하여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삼규 하수과장은 “준설작업 등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은 물론 개인재산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우에 대비한 침수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보건소, 홍역 예방수칙 당부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최근 태국 여행객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잇달아 홍역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홍역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홍역”은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점막 반점에 얼굴에서 시작해 온 몸으로 번지는 발진이 특징이며,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바이러스 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6주 전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기관 직원은 홍역 유행 시 위험 노출이 크고 감염 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MMR 예방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감염예방을 위하여, 홍역 의심(발열을 동반한 발진)환자 선별 진료소를 군산의료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명절 연휴 환경오염행위 단속

군산시는 설 연휴기간 중 관리 감독이 소홀한 시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및 환경오염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서 운영되는 특별감시반은 환경기초시설, 폐수처리업체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눠 홍보와 환경순찰, 단속, 기술지원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

명절 연휴 기간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장 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최근 2년간 환경오염행위 적발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질오염사고 등에 대비해 환경오염행위 및 수질오염 상환실을 운영하고 오염의심 하천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펼친다. 또한 설 연휴 후(2월7일~13일)에는 환경관리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4~5종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새만금지방환경정,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행위 및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및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군산시 상황실(주간 ☎454-3403), 야간(☎454-4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감염병 홍역 유행 방지 홍보

익산시는 2군 감염병인 홍역 유행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대구와 안산, 시흥 등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홍역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홍역은 환자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되면 초기에는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커 발전 후 4일까지 격리가 필요하다. 시는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해당 지역 여행 전 예방백신(MMR)의 2회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설 익산 곳곳 나눔 행렬 줄이어

베리굿팜 김기진 대표 1000만원 기탁 등

설 명절을 앞둔 익산지역에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21일 남중동 발전위원회는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남중동 맞춤형복지팀에 기탁했다. 남중동 발전위원회는 회원들이 직접 모금한 성금 100만원과 표형덕 위원장, 김유진씨가 개인 기부금을 더해 온정을 나눴다.

기탁 받은 성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지원된다. 읍포면에서 양돈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기진(췌베리굿팜 대표)도 이날 1000만원을 면사무소에 기탁했다. /김재훈 기자

김기진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8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기탁한 기부천사로 통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노인층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성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금마면 소재한 췌화산은 백숙용 토종닭 370마리를 기탁하며 사랑을 실천했다. 기탁된 토종닭은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돼 어르신들의 식사로 사용된다.

한편 췌화산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약정을 체결해 다수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8일까지 디지털농업인대학 신소득작목 과정 입학생을 모집한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디지털농업인대학 입학생 모집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8일까지 디지털농업인대학 신소득작목 과정 입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신소득작목 과정 ▲도시농업 과정 ▲수제맥주 과정 등 3개 교육으로 확대 편성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과정별로 24회에 걸쳐 100시간 동안 진행되며, 전문분야별로 체계적인 이론 및 실습, 현장교육 등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8일까지로 신소득작목 과정 신입생 40명을 모집하며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입학지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구

비서류를 갖춰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또는 읍면동 농민상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도시농업반과 수제맥주반도 순차적으로 입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며, 디지털농업인대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영교육계(☎454-5241~3)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농업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2기를 맞는 디지털농업인대학은 2008년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44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졸업생들은 상호 유대감 증진과 교육 피드백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 농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평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